

실적보다 중요한 CEO의 존엄 — 존재의 감사

시편 139:13-14 · 창세기 1:26-28 · 야고보서 1:22 · 감사 한진준 목사

WEEK 2 · CORE

“자신이 선물이다”

나는 성과 이전에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며, 직원도 그러합니다.

핵심 본문

시편 139:13-14

확장 본문

창세기 1:26-28

실천 본문

야고보서 1:22

구조 · 시간

SMAT · 약 30분

강의안

0. 1강 돌아보기 2분

지난 1강에서 우리는 “감사는 배워야 할 경영의 기술”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. 생각하고 (THINK), 느끼고 (THANK), 표현하는 (EXPRESS) 세 걸음이었습니다. 30일 챌린지 1주차는 ‘보기’였습니다. 지나쳤던 고마운 장면을 찾는 훈련입니다.

오늘 2강은 그 감사의 방향을 한 단계 깊이 돌립니다. 지금까지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했다면, 오늘은 내가 누구인지에 감사합니다. 소유의 감사에서 존재의 감사로 넘어갑니다.

1. 도입 — 실적이 없는 달, 나는 누구입니까? 4분

대표님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. **실적이 가장 좋았던 달**, 대표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셨습니까? 그리고 **실적이 바닥이던 달**에는 어떠셨습니까?

많은 경영자가 매출표와 자기 자신을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. 숫자가 오르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, 숫자가 떨어지면 내가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숫자는 더 이상 **성적표**가 아니라 **이름표**가 됩니다.

이 함정은 대표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. 실적으로 자기를 재는 리더는 직원도 실적으로만 잹니다. 숫자를 못 채운 직원은 ‘문제’가 되고, 신입은 ‘손이 덜 가는 인력’이 되고, 나이 든 직원은 ‘비용’이 되고, 결국 모든 사람이 ‘인건비’가 됩니다. 감사가 사라진 조직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오늘 말씀은 이 순서를 바로잡습니다. **존재가 먼저이고, 성과는 그다음입니다.**

S · M 2. 시편 139:13-14 — 감사의 출발점은 ‘나를 지으심’ 8분

¹³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¹⁴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

시편 139:13-14

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. 전쟁에서 이겼고, 나라를 세웠고,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. 그런데 그가 감사의 이유로 꼽은 것은 왕관도 승전도 아니었습니다. “**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.**” 그는 자기가 이룬 것보다 먼저, 자기가 **지음받았다**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.

13절은 시점을 ‘**모태**’로 돌립니다.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, 이력서도 실적도 직함도 없을 때입니다. 하나님은 그때 이미 나를 정성껏 지으셨습니다. 그러니 나의 가치는 내가 한 일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. **하나님이 하신 일**에서 시작되었습니다.

2주차 CORE — “자신이 선물이다.”

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선물입니다. 선물의 가치는 선물이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, **보낸 분**이 정합니다. 그래서 실적이 좋은 달에도 교만할 이유가 없고, 실적이 나쁜 달에도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.

존재의 감사는 게으름의 핑계가 아닙니다. 오히려 **두려움에서 풀려난 수고**를 가능하게 합니다. 증명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. 이미 귀하게 여김받은 사람은 감사로 일합니다.

M · A 3. 창세기 1:26-28 — 경영자와 직원, 같은 형상 8분

²⁶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²⁷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²⁸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, 땅을 정복하라,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

창세기 1:26-28

시편 139편이 “나는 귀하다”를 말한다면, 창세기 1장은 “**우리 모두 귀하다**”를 말합니다. 하나님의 형상은 대표에게만 있지 않습니다. 사무실의 경리 직원, 현장의 반장, 갓 들어온 신입, 정년을 앞둔 고참, 협력업체 직원, 고객, 그리고 멀리서 온 이주 근로자까지 — **예외 없이 모든 사람**에게 똑같이 있습니다.

28절의 순서를 보십시오. 하나님은 먼저 **복을 주시고**, 그다음에 **다스리라고** 하셨습니다. 일과 사명은 존엄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. 이미 받은 존엄을 **표현하는 자리**입니다.

구분	직함 · 성과 (역할)	형상 · 존재 (존엄)
무엇인가	회사가 맡긴 역할	하나님이 주신 정체성
언제 바뀌나	승진·퇴사·실적에 따라 바뀜	바뀌지 않음
경영의 언어	인건비, 인력, 생산성	사람, 이름, 동역자
리더의 태도	평가하고 관리함	존중하고 세워 줌

둘 중 하나만 고르라는 말이 아닙니다. 성과는 정직하게 평가해야 합니다. 다만 **평가는 행동에 하고, 존중은 사람에게 합니다**. 질책해야 할 때도 그 사람의 존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. 이것이 형상을 아는 경영자의 품격입니다.

A · T 4. 야고보서 1:22 — 들은 감사를 행동으로 5분

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

야고보서 1:22

오늘 말씀이 아침 식탁에서 끝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. 존재의 감사는 월요일 사무실에서, 현장에서, 회의실에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세 겹의 적용을 드립니다.

나에게 · SELF

“숫자는 나의 성적표이지 이름표가 아니다.” 실적이 나쁜 날, 시편 139:14를 소리 내어 고백합니다.

직원에게 · PEOPLE

성과 감사와 존재 감사를 둘 다 말합니다. “이번 납품 고마워요” 그리고 “당신이 우리 회사에 있어서 고맙습니다.”

조직에 · CULTURE

평가는 행동에, 존중은 사람에. 직급·나이·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 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.

✓ 이번 주 실천 — 존재 감사 3·3·3

- 1 아침 3번 고백 — 하루를 시작할 때 “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”(시 139:14)를 세 번 고백합니다.
- 2 직원 3명에게 존재 감사 — 이름을 불러 성과가 아닌 존재에 감사합니다. “OO 씨가 우리 회사에 있어서 고맙습니다.”
- 3 회의 첫 3분은 사람 — 실적 보고 전에, 사람에 대한 감사 한마디로 회의를 엽니다.

30일 감사경영 챌린지의 2주차 ‘말하기’와 같은 흐름입니다. 다음 주 포럼 테이블에서 달라진 장면 하나를 나눠 주십시오.

💬 테이블 나눔 3분

- 1 실적이 나빴던 때, 나를 지켜 준 말이나 사람이 있었습니까?
- 2 우리 회사에서 ‘인력’이나 ‘비용’으로만 불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?
- 3 이번 주 존재 감사를 전할 직원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.



결단과 기도

하나님 아버지, 실적보다 먼저 저를 지으시고 귀하게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. 숫자가 저의 이름이 되지 않게 하시고, 성과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**주께서 지으신 선물**로 살게 하옵소서.

제 곁에서 일하는 직원과 거래처, 만나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주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, 평가는 공정하게, 존중은 넉넉하게 하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. 들은 말씀을 이번 주 일터에서 행하게 하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CBMC 김해한마음지회 · 비즈니스 감사학교 2주차

토요조찬포럼 매주 토요일 오전 6:50 · (주)반석인더스트리즈 · 제작: 엘림G브릿지

홈으로